

# 위탁교육, 숙소를 고민중인 군인들에게...(3탄)

대위 000

## 1. 서 론 (소 개)

위탁교육에 합격하여 아마 대학(본인에게 주어진 대학)까지 최종적으로 선택하셨기에 지금 이 3탄(숙소 편)을 보고계실 것이라 봅니다. 숙소를 많이 고민중일 것 같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거나 또는 지금 고민의 길에 서있으신 여러분들을 위해 짧게나마 준비해보았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 2. 본 론

대학교 선정도 아마 만만하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라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과정의 선택과 누려보지 못했던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아마 벌써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즈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주변 지인(선,후배)들에게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이 가족처럼 친근한 관계가 아니고, 평소 연락도 해보지 못한 모르는 분들, 지나가다 얼굴 한번 마주쳤던 분들이었기에 연락하는게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혼자 해보자기에는 너무나 서울 생활이 막막했기에 저처럼 시골에 살면서 서울쪽에 집이 없는 상황이 대다수라는 판단하에 이 글을 작성해봅니다. 그럼 제가 간략한 팁과 제가 가졌던 생각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데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 때 그 기억과 1년간의 경험을 살려봅니다. Let's start!

### ① 학교를 먼저 선정하였다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 인지 고민해보기

- 도보
- 버스, 지하철, 자가차량
- 자전거, 오토바이 등

\* 왜 고민하는지 ? 빠르면 1월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때부터 이동수단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자가차량을 팔고 자전거나 전동스쿠터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통학을 하려했습니다. 자가차량을 쓰기에는 도로 상황이 서울이 너무 복잡하고, 주차요금이 사실상 학교 내에서는 상당하기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소 이동뿐만 아니라 학교 통학을 위해 스쿠터를 먼저 구매하게 되었고, 현재는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ㅎㅎ 지하철, 도보로 가야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그 부분이 간단할 수 있지만 출퇴근시간(8~10시)의 교통과 그러한 복잡함을 느끼기는 싫어서 위와같은 교통수단을 피하고 겨울에 춥고, 눈비오는 날에는 이용못하지만 스쿠터나 자전거를 이용 중입니다. ^^ 각 교통수단마다 장단점은 직접 해봐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이제 본격적인 숙소 문제입니다. 선택지의 경우에는 학교 기숙사, 자취방, 군인 아파트, 서울집이 있다면 그곳에 사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취를 해보지 않았다면 본인만의 로망?이랄까... 자취하는게 있을 것입니다. 저로서도 자취를 한 적은 한번도 없었기에 월세를 선택하여 1학기동안은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업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였을까... 아침일찍, 저녁늦게 고작 잠만 자는 집에 월 50~60을 투자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 낭비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차선택을 찾아볼까 하다가 군인아파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울권 학교에만 국한되어서 설명드려서 죄송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학교를 진학하려는 곳에 선배나 동기후배가 있다면 그곳에 문의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 학교 기숙사 : 그나마 저렴하면서도 학교 통학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1인실 혹은 2인실이기에 그렇게 넓지 않은 방에서 살아야할 조건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것은 본인의 생각이 가장 크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군생활간 관사에서 살았던 경험과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이라면 학교 기숙사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 자취방 : 보증금과 월세 혹은 전세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본인만의 아늑한 방에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원룸은 풀옵션이기에 준비해야할 가전과 가구들도 딱히 없습니다.

\* 군인 아파트 : 서울권에서 군 위탁생이 받을 수 있는 아파트에는 육사아파트(그닥 시설이 좋지는 않음), 수방사 한울아파트(기혼자 관사였으나 미혼자에게도 숙소를 제공하고 있음. 배경설명은 생략)가 가능합니다.

- 글쓴이는 한울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지하철역 5분 이내거리이고, 남태령역(4호선). 사당역(2,4호선) 근처라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와는 거리가 있기에 지하철, 버스 혹은 자전거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한울아파트는 군인아파트 특성상 영외마트가 있기에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 부모님 집 : 아마 돈을 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만큼 ㅎㅎ.... 다른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 ④ 군 위탁을 하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기에 처음 목표를 잡고 때로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멍때리는 시간도 갖고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처음 접해보는 경험이기도 혼자 고민해야하는 시간도 많고 학업적인 고난도 분명 겪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기에 위탁교육에 붙으신 여러분들께서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분명 입학하시면 만들어질 카톡방 또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질 것이고, 석사과정을 함께 하실 대학원생분들과 친해지면서 좋은 경험과 많은 견문을 쌓으실 것입니다.

### ⑤ 기타

자가차량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주변 군 선배, 지인들을 보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거의 없고, 자취방 / 기숙사 / 군인 아파트 등에 주차를 하며 보통 주말에 놀러가거나 불일 보러 갈 때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중고로 팔아서 그냥 평일 출퇴근간에는 자전거나 스쿠터를 이용하며, 주말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여행을 갈 때이면 서울에는 정말 쏘카(SOCAR) 서비스가 잘 되어있어서 미리 예약을 하고 타고다닌다면 남 부럽지 않은 교통편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할 것이고, 매월 받았던 수당들에 대해 많이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2년동안은 그 동안 하지못했던 여가, 운동, 여행 등등 하고 싶었던 것 할 수 있기에 아낌없이 지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3. 결 론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연락하시면 정말 제가 느꼈던 그 고민, 고민 또 고민 끝에 지금 누구보다 감사하는 위탁생활을 하는 이 소중한 경험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학업으로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힘들었습니다. 종강을 하여 조금 여유로운 삶을 보내며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3학기, 4학기가 시작되고 논문을 쓰면 다시 군생활로 복귀해야 되지만 항상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붙으셨든 여러분이 계신 과정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가고 싶었던 과정이기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공부하시고 힘드신만큼 많이 배우실 것입니다. 항상 파이팅하시고 23년도 파이팅입니다!